

바둑

‘집념의 승부사’ 후지쓰배 품에 안다



박정상 7단, 슬럼프 극복하고 세계대회 첫 우승
올시즌 국제대회 무관 한국 바둑 ‘구세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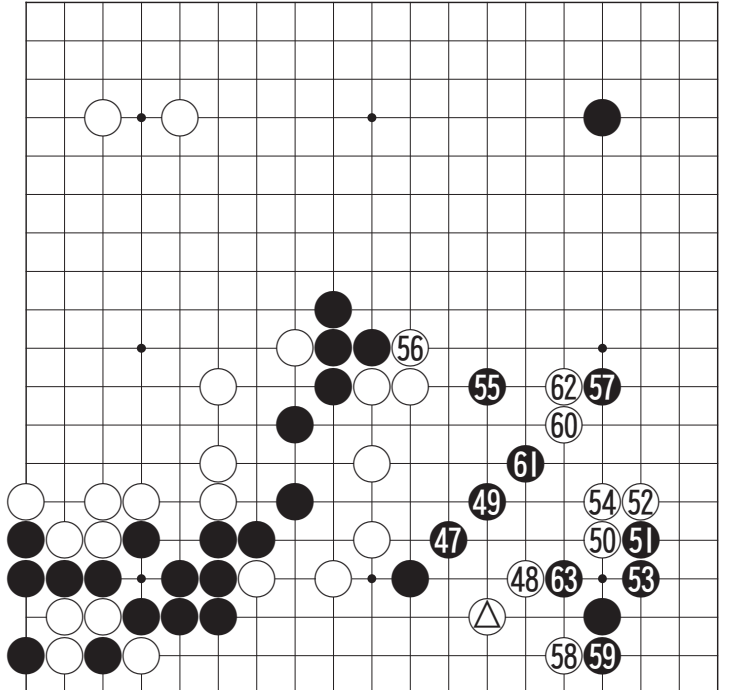
지난 3일 후지쓰배를 품에 안은 박정상(22) 7단이 한국 바둑의 ‘구세주’로 떠올랐다. 박정상 7단이 제19회 후지쓰배 세계바둑선수권 결승전에서 중국의 저우허양 9단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우승은 올해 열린 6개 세계대회에서 한 차례도 정상에 서지 못한 한국바둑으로선 ‘해결의 단비’였다. 그는 지난 2000년 프로에 입문한 지 5개월 만에 왕위전 본선에 올라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촉망받는 기사였다. 이듬해에는 LG배 본선과 삼성화재배 8강에 오르며 세계대회 우승의 꿈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한 때 후배에게 마저 밀리는 등 깊은 좌절감 때문에 바둑을 포기하려고도 했던 아픔이 있었다. 신인으로서 화려한 조명을 받았지만 심각한 슬럼프가 찾아온 것이다. 같은 해경희 9단 문화생이자 후배인 송태근 8단 등에 밀린 데다 성적마저 기대에 못미쳤다. 송태근은 지난 2002년 제7회 천원전, 제2회 신예연승 최강

전, 2003년 제22기 바둑왕전 등 굵직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7단을 앞서나갔다. 집념의 승부사 박정상은 이후 무서운 노력을 기울인다. 한국기원 대국장에서 ‘장고과 3인방’의 한명으로 꼽히게 됐고 ‘앉아 있는 일인자’라는 별명마저 얻는다. 박정상의 이번 우승은 그 같은 집념의 산물이었다. 그가 좌절을 딛고 일어선 데는 어머니의 뒷바라지가 큰 힘이 됐다. 바둑을 지고 집에 들어 오는 날이면 박정상 7단은 광장까지 괴로워 했다. 그때마다 그를 뒷바라지 해 온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해주고 싶지만, 겉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것으로 위로를 대신했다. 박 7단은 어머니의 ‘사랑한다. 너를 믿는다’는 말이 그 어떤 위안보다 큰 힘이 됐다고 한다. 그는 어려서 지극한 개구쟁이였다. 부친 박병희(중앙고 교감)씨는 이 성격을 고치기 위해 바둑을 시켰다고 한다. 7살 때 바둑 돌을 처음 잡은 지 7개월 만에 출전한 KBS바둑잔치 유치부에서 3위에 입상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바둑을 시작했다. 그동안 국내에선 신예대회에서 두 번 우승했을 뿐 아직 본격적인 기전은 없었다. 전투에 능하고 적극적인 기풍을 지녔으며 현재 외국어대 휴학 중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작전의 기로
2회전 제 4보(47~63)

白 기우준 5단 (광주시교육청)
黑 허우석 5단 (광주시청)



두 대국자가 초반부터 기싸움을 벌이며 일합을 겨뤘으나 결과는 일진 일퇴의 공방이었다. 백이 전보 마지막 수 50로 쳐들어가 바둑은 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기 5단은 이번 흑 한 점을 공격할 속셈이 분명하다. 이 곳은 모양의 급소로 새로운 전단을 찾는 요충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흑이 47로 나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이상 다음 수를 보다 속고해서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백은 48로 나갈 뒤 우하귀 50로 걸쳐 일단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는데 성공했다. 우하귀의 흑 모양이 축소되고 나면 좌변 쪽 백의 모양이 워낙 커 큰소리를 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도대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백으로서 흑이 51로 붙여왔을 때가 중요한 작전의 기로였다. 기우준 5단은 당연하다는 듯이 52에 막고 54로 이어 만족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백 모양은 63으로 붙이는 수가 있어 보기보다 강력하지는 못하다. 백은 이번부터 중앙까지 곧바로 동맹하고 있으므로 이 곳이 약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52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부딪치고 5까지 두텁게 두는 것이 좋았다. 이렇으면 백 우세. 흑 63이 흑수로 문제가 발생한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무한질주, 저력은 팀워크죠”

‘무적함대’ 한게임팀 그림자 유승엽 팀장
국내 바둑계의 대표기전 KB국민은행 2006한국기전 정규시즌이 반환점을 돌아 5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 5일 현재 총 8개 팀 가운데 부동의 1위는 경기 한게임팀.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Kixx, 월드메르디앙, 매일업 등을 제치고 단독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저력은 무엇일까? 무적함대 한게임팀의 그림자, 유승엽 팀장을 만나 한게임 연승질주의 힘과 그만의 선배 노하우를 들어 보았다. -1위를 달리고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 팀워크를 꼽고 싶다. 선수가 경기를 할 때 다른 선수들이 함께 응원을 하고 식사도 한다. 혼자 쓸쓸히 대국장에 들어가야 하는 선수와 모든 동료들이 힘을 북돋워 주는 팀의 선수 중 어느 쪽이 좋은 성적을 낼지는 자명한 이치가 아닐까? -한게임은 한국바둑리그의 원년인 2004년에도 우승한 팀이었다. 2년 전과 전력을 비교한다면 ▲냉정한 평가를 한다면 2004년 한게임팀의 전력이 우위였던 것 같다. 2004년도 좋았지만 올해의 팀워크는 그야말로 발군이다. 2004년 한게임과 2006년 한게임이 맞붙는다면 승률은 5-5일 것이다.



-올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광주 Kixx이다. Kixx는 주장 최철한 선수가 팀원을 직접 지명했기 때문에 선수들 간의 개인적인 친분이 두텁다. 선수들 개개인이 세기기도 하지만 팀워크가 대단하다.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윤영기기자 penfoot@

가장 짜릿한 6월의 승부사는 누구?
바둑리그, 12일 MVP 발표
6월 한 달 동안 가장 짜릿한 승부를 펼친 기사는 누구일까? 2006 한국바둑리그에서는 매달 가장 짜릿한 승부를 선보였거나, 인상 깊은 활약으로 팀에 공헌한 기사들을 팬투표를 거쳐 MVP로 선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MVP는 오는 12일 한국바둑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6월 후보는 김승준 9단, 유창혁 9단, 이세돌 9단, 최철한 9단, 이영구 5단, 강동윤 4단 등 6명. 대전 신성건설의 김승준 9단은

Entertainment section containing movie listings for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컬럼버스 시네마', and '씨너스 광주 8개관' with showtimes and pr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A+ Real Estate Consulting) featuring '땅' (Land) and '망' (View)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호남랜드공인중개사' (Honamland Certified Real Estate Agent) offering variou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중앙국토개발컨설팅' (Jungang National Development Consulting) listing various real estate project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동림2지구공인중개사' (Donglim 2-district Certified Real Estate Agent) featuring '대지공인중개사' and '동림2지구 대입'.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지공인중개사' (Land Certified Real Estate Agent) listing various land and house properties.